

세계 유수 edX 멤버들과 만나다!

특집

2014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보스頓대학교에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edX 멤버들의 모임인 ‘edX Global Forum’이 개최되었다.

● ● ●
김 선 영
이라닝콘텐츠개발부
연구조교수



edX는 하버드대학교와 MIT가 각각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동 설립한 비영리 기업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하버드대학교, MIT, 버클리대학교, 북경대학교, 홍콩대학교, 도쿄대학교 등 전 세계 37개의 유수 대학으로 구성된 edX 인가 멤버(edX Charter Member)와 IMF, Linux Foundation, OCW Consortium 등 27개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edX 일반 멤버(edX Member)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1월 중순 현재 운영 중인 강좌는 52개 강좌, 향후 운영할 강좌는 193개 강좌이고, 21개 강좌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학습할 수 있으며, 이미 160개 강좌가 운영되었다.

서울대학교는 학내 교수학습 발전을 위한 시도와 연구, 대외적인 지식 나눔, 그리고 대학의 글로벌 위상의 확립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21일 edXer의 협약을 통하여 SNUx로 가입하였다. 현재까지 로봇공학입문(Robot Mechanics and Control) Part I/Part II와 한반도와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Korean Peninsula) Part I이 운영 완료되었으며, 현재 물리의 기본 1(Introductory Physics) Part I 운영 중에 있다.

edX는 세계 유수대학과의 협약 및 강좌 운영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등을 통하여 edX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각 대학의 개

발자, 교수설계자, 교수 등에게 효과적으로 edX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협약 기관 간 의견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는 홍콩에서 개최된 홍콩 2개 대학교 및 서울대학교를 위한 워크숍을 통하여 edX 강좌 운영 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2014년 11월에는 일부 기관이 아닌 edX 전체 멤버가 참석하는 포럼에 참석하여 edX 강좌를 운영한 대학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edX CEO인 Anant Agarwal을 필두로 하여, 현재 edX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각 대학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edX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대상 학습자의 변화로, 대학생 중심에서 점차 예비대학생에 해당하는 고등학생과 전문교육에 대한 수요 대상인 직장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고등학생과 교사에게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와는 차별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강좌를 개설하여 기존 유료 강좌에 비해 훨씬 더 비싼 500달러 정도를 강의료로 책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니저인 Mark Rudnick과의 미팅을 통하여 그동안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계 형성 및 유지와 의견 교환이 깊게나마 면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업무 측면에 있어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미팅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의 edX 강좌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주관기관으로서 edX가 협약기관인 서울대학교의 SNUX에 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edX Global Forum을 마친 후 edX와는 다른 업무 차 들렀던 하버드대학교 기관이 edX와의 협약기관인 HarvardX 사무실 및 스튜디오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운 좋게도 HarvardX의 스튜디오를 살펴볼 수 있었다. edX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HarvardX 전담 인력이 30여 명에 이르고, 전용 스튜디오가 구비되어 있는 점은 SNUx 담당자로서 부러운 동시에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번 edX Global Forum 참석을 통하여 세계 유수 대학들이 edX 강좌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지게 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해당 대학 관계자들의 발표와 논의 과정에서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를 운영하는 기관 중 협약기관의 위상을 가장 중시하는 edX와 협약을 하여 세계 유수대학과 함께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2014년 4월에 또 다른 MOOCs 기관인 Coursera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Coursera Partner Conference' 와 비교해 볼 때, edX에서는 전 세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좌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강좌 설계 및 개발에 대한 고민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협약기관인 각 대학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소재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그들의 경험과 관심에 따라 논의가 진행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예컨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강좌를 준비,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영문 스크립트 개발을 들고 있지만, 실제 포럼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운영될 포럼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미국 이외의 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미국 소재 대학교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그 이외의 대학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이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